

공적입양체계 안착 위해 현장 중심 협력 강화한다

- 복지부·법원·지자체 등 관계기관 입양실무자 워크숍 개최 -
- 실무역량 강화 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관계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무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법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 관계기관 입양실무자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워크숍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의 ‘아동 중심 공적입양체계의로의 전환: 자격·결연 심의의 변화와 협력 방향’에 대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국가아동권리보장원·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 실무 추진 현황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이 현장 실무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입양 절차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입양은 한 아동의 삶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각 단계에서의 세심한 판단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였다.

이어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소통과 실무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공적입양체계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공적입양체계 관계기관 실무자 워크숍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정책팀	책임자	팀장	윤장열 (044-202-3550)
		담당자	사무관	강혜경 (044-202-3555)



□ **추진 배경**

-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무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공유 필요

□ **추진 개요**

- (일시) '26. 5. 15.(금) 14:00 ~ 17:00
- (장소) 서울역 4층 대회의실
- (참석) 복지부, 법원 관계자, 지자체, 대한사회복지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약 50명)
- (주요내용) 교육, 기관별 추진현황 사례발표 및 질의답변, 종합토론 등
* 강사 : 세종대학교 박현선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부 일정(안)**

* 진행: 복지부 윤장열 입양정책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14:10-15:30	'80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 주제 : 아동 중심 공적입양체계로의 전환: 자격,결연심의의 변화와 협력 방향	세종대 박현선 교수
15:30-15:40	'10	쉬는 시간	
15:40-16:40	'60	입양실무 추진현황 발표 및 질의·답변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시 성동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16:40-17:00	'20	협업 강화방안 등 개선 필요사항 논의	참석자 전원
17:00-		종합정리 및 폐회	

□ **기대 효과**

-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소통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효적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공적입양체계 안착 지원